

# 연중 제24주일

## (가해) 9월 11일

궤답송 : 시편 103(102), 1-2. 3-4. 9-10. 11-12 (© 8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주님 은 자비롭고 너 그 러 우 시 며 분노 에는 더디 시나 자애 는 넘치 시 - 네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	라	내 안의 온갖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	찬미하여	라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	고	네 모든 아픔을	없애시는	분
3. 끝까지 깨운지 않으시	고	끝끝내 화를	품지 않으시	네
4. 하늘이 땅위에 드높은 것처럼	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	자애 넘치	네	

내 영혼아 주님을	찬미 하여	라	그분의 온갖 은혜	하나도 잊지 마	라
네 목숨 구렁에서	구해내시	고	자애와 자비의 관을	씌우시는	분
우리를 죄대로	다루지 않으시	고	우리의 잘못대로	값지 않으시	네
해뜨는데서 해지는 데가	먼 것처럼	우리의 허물들을	멀리 치우시	네	